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나선다

민관지원단 위촉식... 행정지원·투자유치 역할 기대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민선8기 전라북도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민관

지원단은 새만금개발청 관공진흥과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학계·언론·기업의 테마파크 관련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새만금 대

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추진경과 및 민관지원단 운영계획 설명과 함께, 효과적인 민관지원단 운영을 위한 지문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민관지원단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투자유치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국내·외의 직·간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투자자 발굴 및 관리, 인센티브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에는 반기별로 총 2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기업면담, 현장캠퍼 투어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는 계획단계부터 투자유치,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지원단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테마파크 유치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민선8기 전북도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민관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전북도, 자원순환 우수 시·군 표창

최우수 '남원시·진안군', 우수 '익산시·고창군' 선정

전북도는 2023년 자원순환 추진 실적 평가에서 남원시와 진안군이 최우수, 익산시와 고창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으로부터 도정 협력을 이끌어내고 자원순환 분야 정책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적 경쟁체계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평가는 청소행정 효율성, 자원재활용 확대, 역점시책 추진 등 총 4개 부문 14개 지표로 이루어지며, 시·군의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14개 시·군을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나눠 이뤄진 평가에서 시지역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 익산시가 우수를 차지했으며, 군지역에서는 진안군이 최우수, 고창군이 우수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도민 밀착형 자원순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점 추진한 폐가전 내집앞 맞춤형거와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를 신규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가 순환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평가에 반영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쓰레기 발생량은 48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 줄었고 재활용 품 분리수거량은 1,506톤으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8%가 늘었으며, 영농폐기물도 8%가 증가한 2만톤을 수거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이bane 선정된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북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최우수는 각 8백만원, 우수는 각 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내년에도 보다 앞서는 자원순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나가겠다"며, "순환경제·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자원순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전국 최고 예산 확보

전북도 3개 시·군 선정돼 국비 90여억원 확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공사사업에 전국에서 최다인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약 9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8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20개 시·군·구 사업이 선정됐다. 그 중 전북도가 3개 사업에 90억원의 전국 최고 예산확보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매년 3개소 이상 선정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다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사업비에 투입하여, 총 구간 4,140m 469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을 단순히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간판디자인을 발굴하고 입면정비를 병행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사업비에 투입하여, 총 구간 4,140m 469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시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900m 구간 104개 광고물, 임실군 '봉황로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2,440m 구간 120개 광고물, 고창군 '선

운산 도립공원역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800m 구간 149개 광고물을 정비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도내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사업 추진 이전부터 간판개선 사업대상지의 컨셉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명품간판을 구현할 예정이다.

실상회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전라북도가 18년도부터 이어온 전국 최다 간판개선 사업지의 명성에 걸맞는 특성화된 간판 디자인 거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공유

고독사 예방·대응체계 마련

전북도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2일 전주치명자살성지사에서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먼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3년 9월부터 도내 고독사 위험군 5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촘촘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했다.

남원시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읍면동장이 매일 취약가구를 방문해 선제적으로 위기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4년 4월까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2024년 1월중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에서 남원을 방문해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범사업을 20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독사발굴추진단 운영, 생계비·간병비 지원, 빛대물림방지 예방교육, 원에정서치료반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복지관 전주리'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특성인 대면서비스 거부가구에 대한 외부활동 독려를 위해 고립가구에 라면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가져오면 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소개 후 노수현 (주)콤도서출판 대표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엄기욱 군산대 교수는 고립된 대상자를 찾아 이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사례공유회를 계기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우수사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박차

2024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

21일 국회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문화·체육·관광분야)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 전체를 아울러 유소년과 청소년 중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지

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총사업비 490억원의 대형사업이다. 이번 2024년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건립을 위한 20억원의 예산 확보는 그동안 남원시·전북도·국회(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합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공동 대응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

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본 사업은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20억 원은 현재 추진 중인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4년 4월까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2024년 1월중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에서 남원을 방문해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